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25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5월 1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도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거부하는 충청북도!



2021년 3월 29일(월) | 충북도청 서문 |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 충북도민 1만5천명의 참여로 만든 조례

충청북도가 도민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스르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충북도민 15,100명의 뜻을 모아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충청북도는 이 조례가 상위법 위반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각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100여개의 기초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충청북도만 유독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 도민의 뜻 강력하게 보여준다!

충청북도가 도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더 강력하게 그 뜻을 보여줄 것이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코스모링크지회, 옥천버스에 투쟁기금 전달



코스모링크지회가 모범적인 지역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모링크지회는 같은 지역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옥천버스지회를 찾아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코스모링크지회는 투쟁기금 전달 외에도 옥천버스 앞 피켓팅에도 함께 하는 등 꾸준히 연대를 실천해왔다.

옥천버스는 직장 갑질과 부당징계 등 노동탄압을 벌이며 부당해고까지 자행했다. 회사는 조합원이 몸이 아파 휴가를 냈더니 집까지 찾아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조합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했지만 알콜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개선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사과커녕, 음주계통 비위행위와 허위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해고까지 자행했다. 노조가입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